

‘우물안’ 책문화를 개탄함

박성래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 과학사

로드리게스(1561~1634)는 우리나라에 처음 서양 책을 전해 준 사람이다. 아마 한자로 표기한 그의 이름 <육약한>(陸若漢)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는 독자가 조금은 있을지 모른다. 1631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던 정두원(鄭斗源)은 그로부터 몇가지 서양 책과 함께 자명종, 천리경 등을 얻어왔다고 역사 책에는 적혀 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온 중요한 사실이어서,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때 그가 받아들인 책으로는 《치력연기(治曆緣起)》, 《원경설(遠鏡說)》, 《직방외기(職方外紀)》 등 대여섯가지가 기록돼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책을 읽다가 《통역 로드리게스》(Rodrigues the Interpreter by Michael Cooper)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로드리게스란 인물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육약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책에 의하면 로드리게스(또는 육약한)는 원래 1561년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예수회 출신의 서양 선교사다. 1577년 일본에 온 그는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만든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일본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그는 장기(長崎, 나가사키) 플레지오(대학)에서 《일본문전(日本文典)》, 《일포사서(日葡辭書)》, 《일본교회사》 등을 썼다. 1591년 1월 예수회 순찰사가 일본 교회를 시찰하러 오자 당시 지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만남을 통역했고, 이어 일본의 지배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도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기독교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도쿠가와와는 집권 직후 기독교 탄압에 나섰고,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거나 처형되었다. 로드리게스도 1610년 마카오로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당시 중국 명(明)나라는 북방민족(뒤에 만을 세운)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서양식 대포를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채용한 서양식 대포관 다름아닌 불랑기(佛郎機)였다. ‘불랑기’란 원래 포르투갈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대포가 그만 불랑기로 불리게 되어 그 말이 더 유명해졌다. 명나라 군대는 불랑기를 만들기 위해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기술자들과 선교사들을 북방으로 초청했고, 통역을 맡은 로드리게스가 산둥반도의 등주(登州)에 머물게 됐다.

조선의 사신 정두원은 귀국 길에 등주에서 로드리게스를 만나 서양 문물을 얻어왔다. 동행했던 역관 이영후(李榮後)는 그후에도 편지를 보내 당시의 서양 천문학 등에 관해 질문했고, 그의 답장을 받았음이 국내의 과학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가 정두원 일행과 관련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400년 전에 이미 《포르투갈-일본어 사전》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포르투갈-한국어사전》이 나온 것은 4백년은커녕 40년을 거슬러오를 수 없을 것 같다.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스페인어·화란어·영어 등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선조들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서양을 알기에는 너무나 나쁜 조건 속에서 19세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서양을 배울 수 있는 책도, 우리를 서양에 알릴 수 있는 책도 절대 부족했고, 그래서 19세기는 바로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웃나라는 조선보다 몇백년 전에 서양 지식인(선교사)이 들어와 활동하고, 사전도 만들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해 책도 쓰고, 아울러 서양 과학기술도 가르치고 있었건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몇백년이나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항로(航路)에서 북쪽으로 쳐져 있는 조선에 일부러 올 엄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없이 좁아진 시대다. 그렇건만 우리는 아직도 외국에 대한 책도, 외국인이 우리에게 대해 쓴 책도 절대 부족하다. 그저 우리끼리 한글만으로 책을 내고 희희덕거리고만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물론 우리말 책도 아직 크게 부족하지만.

한글날을 앞두고 엉뚱하게 우리의 외국어 책 부족을 개탄하게 된다. ❖

- | | | |
|-----------|----|--|
| 특집/한글과 출판 | 2 | 떨쩡한 '입말' 바보 만드는 국어사전들
56인의 편집자가 말하는 우리말·우리글 이용실태 |
| | 4 | 북녘 사람들은 어떤 국어사전을 쓰나 - 신현숙 |
| | 5 | 통일시대를 여는 국어사전 |
| | 6 | 무모한 한글맞춤법 개정, 혼란만 부른다 - 김성재 |
| | 7 | 한글의 '맛' 살린 우리의 글자꼴들 - 한재준 |
| | 8 | 한글 전용인가, 한자 혼용인가 - 김승곤/이응백 |
| 세미나 | 9 | 대우재단 주최 <고전 번역의 현황과 전망> |
| 초점 | 10 | 출판계 긴급 지원금 수혈, 혈관이 막혔다 |
| 집중취재 | 11 | 무관심 속에 멎드는 책들 |
| 저자 초대 | 12 | <서양 근대 혁명사 3부작> 펴낸 김민제 교수 |
| 출판취재 | 13 | 세월 속에 잠자던 신화의 부활 |
| 특별 기획 | 14 | 도서관서도 '베스트셀러' 를 많이 본다
전국 도서관 사서들이 밝히는 이용자의 독서경향 |
| 리포트 | 16 | "도서관은 인류 지식발전의 주춧돌"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 ... 경주 교육문화회관서 3일간 |
| 스캐치 | 18 | 책의 향취 그윽한 문화미당 |
| 가상 대담 | 20 |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시인 윤동주 - 송우혜 |
| 만화 | 21 | 책과 오과장 - 박시백 |
| 연재 에세이 | 22 | 르네상스의 빛나는 역사를 일군 귀족들 - 이광주 |
| 서평 | 26 | 전경옥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 서연호
정호웅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 - 정호웅 |
| | 27 | 김상봉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 백중현 |
| | 28 | 김육동 <전환기의 비평논리> - 김영민 |
| |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 서동만 |
| | 29 | 울리히 벡 <정치와 재발견> - 정수복 |
| 이 책 그 사람 | 30 | <관동보고서> 펴낸 홍진희씨
<탈주선 위의 단상들> 펴낸 이진경씨 |
| | 31 | <한국만화통사(하)> 펴낸 손상익씨 |
| | 32 |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
| 다시 보는 사진집 | 48 | ☞ 남성훈 <소록도> |